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선교 140주년 맞아 한국교회 부활 신앙으로 하나 돼

올해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부활주일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예배는 '부활, 회복의 은혜! 새역사 창조!'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연합예배는 1부 예배, 2부 환영과 결단 순서로 진행되었다. 광림교회 성도들과 기독교연합회 대표, 교단 임원과 한국교회 성도, 많은 내빈이 참석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광림교회 유다지와 찬양단은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었고, 광림교회 연합성가대는 '부활 영광,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드리며 기쁜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

김종혁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그가 살아 나셨다'(막 16:1-11)라는 말씀으로 "부활은 새 생명의 씨앗이며 소망의 초석이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듯이 우리가 한국교회의 마리아가 되어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전했다. 또한 "부활을 매개로 복음을 전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 기독교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하도록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과 희망을 전하자"라고 말했다.

봉헌송은 갈릴리성가대 허진아 성도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부활' '회복' '창조의 기도'의 제목으로 김종주 목사, 김명희 목사, 박광철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2부 환영과 결단 시간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환영사와 교단 대표의 축사,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선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활동을 통해 헌신을 아끼지 않고 백성을 섬기며, 소망을 전하고 이 땅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분열과 나눔, 갈등과 대립, 혼돈으로 아파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사들이 보여준 십자가 사랑의 치유와 회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미



래를 열어가자"라고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부활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여 이 땅을 복음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하고, 대한민국의 하나 됨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힘찬 여정에 초석을 놓을 것을 선포했다. 힘없고 소외된 이웃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교회의 신뢰와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해 한국교회의 버팀목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도울 것을 결단했다.

각 지역에서 광림교회에 방문한 참석자들은 예배 후 1층 로비에 꾸며진 부활절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부활의 기쁨을 기념했다. 광림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선물로 나누었다.

소현수 기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막 28:6)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헛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결과도 헛것이 됩니다. 또한 전도자는 모두 거짓 증인이 되며,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으며,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며, 참 생명을 주시는 사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이자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주검을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주검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인들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주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검을 보러 갔다는 것, 이것은 소망과 바람이 꺾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무기력하며 절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무기력한 신앙



마태복음 28:1~10

1.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그 행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	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그 여	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	---

에서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체험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예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어지기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부활의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둘째, 치유를 통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

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7절).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베드로를 지명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베드로, 예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할 베드로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워주셔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베드로의 기억하기 싫은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픈 기억들을 도말시켜 주시는 참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치유시키

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치유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무려 400번 이상이나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어두움과 무지를 넘어선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며,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산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삶에 모심으로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씨앗

안동제일교회에서 보내온 감사의 편지



존경하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광림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안동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백종석 목사입니다. 지난 경북 지역 큰 산불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교회 안팎의 많은 교우들과 이웃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길 속에 휩쓸려간 삶의 흔적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작아졌고 또 무너졌으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 절망의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광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

류와 식료품, 생필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까지, 그 수량과 정성 하나하나에서 담긴 기도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상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이곳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그 손길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상처받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 그리고 저희 안동제일교회 교우들에게 위로의 손길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헌신과 사랑은 주님의 향기요,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둠과 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광림의 헌신은 단지 도움을 넘어서 복음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 사랑

은 곧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었고, 상실의 땅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오신 광림교회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픔을 짊어지셨던 그 발걸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은혜로운 나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 있게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동제일교회 담임목사 백종석 올림

전교인 선교 한마당, 풍성한 열매 맺어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해 모든 부서 동참해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해 광림교회 전 부서가 참여하고 여선교회 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가 주최하는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4월 22일(화)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2층에서

열렸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선교 한마당에서 "안디옥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고 기쁨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건들을 나누는 가운

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트리니타를 마친 많은 성도들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광림교회 22개 위원회 및 부서가 참여하여 '한마당'을 이룬 만큼 그 열기가 어느해 보다도 뜨거웠다. 의복, 가방, 신발, 다과, 주방용품, 장식품, 문구류 뿐 아니라 행사 현장에서 해물전, 매실청, 떡볶이, 어묵 등 식음료도 판매되었다.

오후 2시쯤 물건으로 가득찬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3시 이전에 이미 광림북교회 녹두전, 청장년부 어묵과 매실 음료, 광림남교회의 유기농 쌈채, 사랑부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새겨진 안경 닻이, 3선교구 마늘잼, 7선교구 김치 등 많은 품목이 매진되어 정리 중이었다. 한 성도는 "광림교회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와 봤는데 물건도 좋고 저렴해서 사다 보니 이렇게 많다"라며 웃었다.

광림교회는 2000년 6월 29일 이슬람 국가인 터키 안디옥에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웠고, 2023년 2월 6일 지진으로 무너진 후 재건을 추진 중이다.

안미영 기자

포토 뉴스



택시 전도데이
남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주일을 맞아 교회 정문에서 택시 전도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오하이오 연회 감독 일행 방문
오하이오 연회 정회수 감독 일행이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 부활절 전도 행사
에티오피아 선교회는 부활절 예배 후 밀레니엄 광장에서 찬양 집회와 노방전도를 했다.

감독회장 동정



- 4/14 아펜젤러선교센터 운영위원회
- 4/15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4/16 수요치유의 신학
- 4/18 성금요일 성찬예배
- 4/20 부활주일, 장애인선교주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 4/23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 축하
- 4/25 서울남연회 목사 안수식 설교
- 4/26 제21회 전교인 체육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5년 제36회 서울남연회



2025년 제36회 서울남연회가 4월 24일~25일 까지 서울 구로구 베다니교회에서 정회원과 평신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의 사회로 개회예배

와 경건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이어 1, 2차 회집에서는 사무 처리 보고, 성역 30주년 근속 교역자 19명, 모범 교역자 등의 시상이 있었다. 또 별세 교역자 16명의 추

도예배와 3차 회집으로 첫날 순서를 마쳤다.

4월 25일, 둘째 날 4차 회집에서는 아침 기도회와 준회원, 정회원의 교역자 성품 통과 절차에 이어 은퇴 교역자 16명을 위한 찬하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헌신과 사명 감당에 감사를 드렸다.

오후 3시부터는 목사 안수예배 및 정회원 허입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안수식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늘 귀한 목사의 직분을 받은 목회자는 사명으로 창조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성령충만하여 합리적 이해로 삶이 체험되어야 한다. 목회는 관심이고 관계성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능력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

랑을 전하라.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축복했다.

목사 안수례에는 유병용 감독, 보좌감독, 과정·자격상임위원장, 보좌감리사, 보좌목사가 참여해 28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으며 정회원이 되었다.

광림교회 소속으로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청년부 이동원 전도사, 정영욱 전도사, 교회학교 고정수 전도사, 광림남교회 김현진 전도사, 광림북교회 유민재 전도사, 미가 전도사, 몽골 광림미션센터 유심원 전도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을 감사로 받았다.

이어 감리사 이·취임예배 및 폐회예배로 제36회 서울남연회와 제84회 연회 조직을 은혜롭게 마쳤다.

이상희 기자

뉴질랜드 광림 30년! 숲속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만 킬로미터 떨어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신앙의 갈증과 영적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1995년 2월 27일에 서울 광림교회에 오를랜드 지교회 설립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그 해 4월 20일, 고 김선도 감독님과 선교단 일행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김장수 장로(당시 집사)댁에서 오를랜드 지교회 설립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4월 23일 주일에 김선도 감독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뉴질랜드 광림교회의 30년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학교 강당과 뉴질랜드 현지 교회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다가 1996년 3월 3일에 현재의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 광림교회 본당의 담

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담긴 선교비를 통하여 교회를 구입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담당목사로 강창현 목사가 파송되었고, 그 후 진문일 목사, 고성환 목사, 정준수 목사 이어서 정명환 목사가 2018년 12월에 파송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 하나인 남태평양 지방 선교의 비전에 따라 바누아트와 피지에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광림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피지의 내륙 마을에 3개의 교회를 건축 봉헌하였고, 광림교회 본당 의료선교회와 연합하여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도 본당 의료선교회와 연합하여 피지 나프르 마을 선교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0일 주일에는 부활주일 및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필사한 전교인 성경 필사본을 봉헌하였고, 지난 30년의 역사를 전사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김정석 감독회장님의 영상 축하 인사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광림교회 본당에서 박관순 사모님과 이창우 장로님을 비롯한 축하단 일행이 방문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5월 30일,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간증이 담긴 연극을 뉴질랜드 광림교회 성도님의 극본과 연출, 그리고 출연으로 발표하고자 열심히 연습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교인 소풍으로 함께 교제하며 행복을 나누었고, 11월에는 특별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광림이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인 힘을 이 땅 뉴질랜드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길을 가운데 새겨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되는 그 순간부터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명환 목사(뉴질랜드 광림교회)

청년부

총력전도의 달, 기도로 시작해 거리로 나아가다

영혼 구원을 위한 S.O.S 기도와 노방전도 이야기



4월, LFC 청년부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도와 전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청년들은 복음의 기쁨과 사명의 감동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다.

매일 밤 9시, 한 영혼을 위한 S.O.S 기도
청년부는 매일 밤 9시에 'S.O.S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기도(Save One Soul)라는 이름처럼, 각자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찬양으로 시작해 감사와 회개, 중보, 간구로 이어지는 기도는 짧지만 깊은 집중과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한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조용한 시간은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며,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 받기를 바라는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

찬바람 속에 피어난 따뜻한 사랑
4월 13일(주일), 청년부 임원들이 광림교회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지역을 교구별로 나누어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모은 후, 2인 1조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했지만, 청년들은 준비한 핫팩과 전도지를 건네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전했다. 거리 위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청년들은 밝은 미소로 더욱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다.

작은 용기와 정성으로 전해진 이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 순종의 걸음
전도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꾸준한 순종의 걸음이다. 청년부는 오늘도 기도하고, 다시 거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장의 전도지는 단순한 종이기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사랑의 열매다. 4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할 것이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교회학교

샤이닝브릿지 3기 개회예배 열려

가정예배 세우기 캠페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광림교회 교회학교가 비전을 품고 추진하는 가정예배 세우기 캠페인, 샤이닝브릿지 3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샤이닝브릿지는 가정과 교회를 잇는 신앙의 다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2022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다. 올해로 세 번째 기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가정예배의 불을 지피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4월 13일(주일) 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개회예배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이 곧 작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다짐이 이어졌다.

교회학교 정성민 목사는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선포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에 다시 살아야 한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예배에 참석한 유치부 최효원 어린이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순수한 믿음의 열매가 벌써 맺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작년 샤이닝브릿지 2기를 완주한 김용세·배미혜 집사 가정은 “샤이닝브릿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며,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의 처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예배에 참석한 1선교구 1교구 김나형 성도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배하는 것이다. 아이들 기억 속에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장면이 남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샤이닝브릿지 3기에는 1·2기를 함께한 총 6가정이 멘토 가정으로 동역하며, 이번에는 153가정예배 노트를 직접 제작해 나누고 있다. '153'은 하루 한 말씀(1), 감사 제목 다섯 가지(5), 기도제목 세 가지(3)로 구성된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예배 방식이다.

예배 순서는 찬양-말씀-감사-기도 제목-주

기도문으로 이어지며, 가족이 돌아가며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식이다. 예배는 반드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집에서 어려운 상황이면 차 안에서든, 시간이 부족하면 짧게라도 드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가족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교체하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샤이닝브릿지가 꿈꾸는 방향이다.

교회학교 이준혁 전도사는 “부활절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100일 캠페인을 시작하며, 50일 분량의 노트를 먼저 배포했다. 참여 가정은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 다른 가정들의 예배 모습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매주 미션과 인증을 통해 가정예배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더 많은 가정이 샤이닝브릿지를 통해 복의 통로로 세워질 소망한다”고 전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이번 3기를 통해 더 많은 모범 가정이 세워지고, 4기에는 멘토 가정 2배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배하는 가정이 빛나는 가정이다. 교회학교는 샤이닝브릿지 3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혜선 기자

목회현장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고전 15:42)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문장은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고전 15:25)의 말씀이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육

체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 모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모든 성도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으며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합니다.(51~52절)

그렇다면 부활 신앙 위에 뿌리내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활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밑알이지만 땅에 심겨질 때,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은 썩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씨앗 안에 담

겨진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 썩을 틈을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신비가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바울도 43절에 비친한 것으로 심겨지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약한 것으로 심겨지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한 알의 밑알이 되는 삶,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 올해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에 입항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부활의 씨앗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씨앗이 되어 그렇게 잠들어 있지만 장차 눈을 뜨게 되는 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파송된 지 3년이 지나가며 조선 땅에 밑알이 된 수많은 선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고민하며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작년부터 베트남 현지 감리교회(VMC) 미자립 20개 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매월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베트남 땅에 부활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교회학교에 새가족 15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시자 다음 세대의 심령과 가정에 부활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베트남 땅을 향한 광림교회 감독회장님과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 덕분임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베트남 선교지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김기민 선교사(베트남 광림미션센터)

광림남교회

부활절 칸타타

감동의 ‘일곱 사랑 노래’ 부활의 기쁨 나눌



2025년 부활주일, 광림남교회에서는 3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일곱 사랑 노래’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올려졌다. 지휘에는 새하늘성가대 양태갑 집사, 피아노 이자현 성도, 합창은 광림남교회 연합합창단(새하늘성가대, 가나안성가대, 청년부, 유년부, 초등부) 140여 명이 참가했으며 새하늘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총 연주 인원 160여 명이 웅장한 사랑의 하모니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특별히 이번 칸타타 연주는 깊은 신학적 통찰력과 묵상을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입힌 새로운 형식의 부활절 음악회였다. ‘일곱 사랑 노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말씀(七言)을 주제로 한 신앙고백이자 예술 작품인데, 서성한 목사가 시를 쓰고 국내 대표 교회 음악 작곡가들이 각각 곡을 붙여 구성한 총 여덟 곡의 부활절 합창곡이다. 특히 성사를 작사한 서성한 목사가 초청되어 작사가 본인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맡아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부활주일 저녁예배 때 연주된 부활절 칸타타는 음악위원장 권정숙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선영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고, ‘일곱 사랑 노래’ 총 8곡 중 ‘아, 갯세마네’(작곡: 한인애)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칠언(七言)을 담은 일곱 개의 사랑 노래가 이어

졌다. 첫 번째 사랑 노래는 ‘용서하소서’, 두 번째 ‘어머니 보소서’, 세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네 번째 ‘어찌하여’,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어다’, 일곱 번째 ‘아버지 손에’를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를 부활의 메시지로 선포하며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번 연주는 광림남교회의 유초등부 어린이 성가대가 천사의 음성으로 2부, 3부 성가대와 함께하여 더욱 뜻깊고 인상적인 음악회였으며, 20·3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청년부도 목소리를 더해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일곱 사랑 노래’ 칸타타 악보가 ‘중앙성가’에서 출판된 이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이 초연이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전도되어 오신 많은 분들도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새롭게 느끼고 돌아갔으며, 여러 성도들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연합찬양단과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부활주일 밤을 보냈다.

양태갑 집사(광림남교회)

실업인선교회

로템의 집 방문

찬양과 예배, 위로와 사랑 전해



실업인선교회(회장 안경섭 장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원 회의를 통해 상반기에 방문할 새로운 시설 3군데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양평군 청운면에 소재한 중증 장애인 시설인 로템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부회장 김성후 권사와 사회사업위원장 김웅세 집사가 사전 답사를 하여 로템의 집 이정순 원장을 만나 운영 현황을 설명 들었다. 로템의 집은 타시설로부터 입소가 거부되거나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쉽고 힘을 얻는 안식처로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시설 현황을 둘러보았고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청 사항도 파악하였다.

지난 4월 12일(토) 안경섭 장로님을 비롯한 36명의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이 아침 일찍 교회 버스로 출발하여 로템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곳에 도착하니 이정순 원장님께서 반갑게 마중 나오셨으며 한 공간에 29명의 중증 장애인(남 19명, 여 10명)이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은 장애우 어린이들 사

이 사이에 같이 앉아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2부 화합의 시간에는 오키나타의 특별 연주와 아이들의 휠체어를 밀어 주며 주변 산책의 시간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주변의 굶지 않은 시선도 있어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했다.

이곳은 2015년도에 법인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로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이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실업인선교회원들이 참여하여 준비해 간 많은 필요한 물품들과 소정의 지원금을 드리고 방문 일정을 마쳤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있고 뜻있는 행사로 회원들 모두가 보람을 느낀 소중한 하루였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었다.

김성후 권사(실업인선교회)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광림교회 소장품 특별전시회

운보(雲甫)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 판화전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운보 김기창(1913~2001)의 '예수의 생애' 판화전입니다. 본 전시회는 국외선교위원회 문찬수 장로가 '예수의 생애' 판화 30점을 기증하여 교회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재정비하여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운보 김기창은 8세에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으나 '예술'이라는 평생의 과업을 통해 자신은 물론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한윤명 여사의 손에 이끌려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세 때 어머니의 권유로 김은호에게 전통채색 기법은 물론 서양화와 일본화 기법을 배웠습니다. 제 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판산

도무]로 입선후 15회까지 연속 6회 입선하였으며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시기 전북 군산에 있는 처가로 피난을 갔다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민족의 비극과 유사함을 깨닫고 한국적 성화를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미국 북감리회 켄센(Anders Kristian Jensen) 선교사의 권유가 더해져 '예수의 생애'를 그리기 시작했고 1952~1953년 군산 피난 기간 총 30점의 성화를 완성했습니다.

서양의 성화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예수의 생애'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두운 시기에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또한, 개신교 한국선교 140년 역사에 있어서도 기독교 복음이 우리 민족 안에 녹아들어 토착화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미술사에도 매우 독창적

이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 화가를 대표하여 바티칸 미술관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일정 및 장소
4월 20일 ~ 5월 18일 / 광림교회
5월 25일 ~ 6월 22일 / 광림남교회

6월 29일 ~ 7월 20일 / 광림북교회
7월 27일 ~ 8월 24일 / 동탄광림교회

문의: 목회선교지원실(02-2056-5733)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하나님 나라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여선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장 - 이화열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선교 및 많은 교회와 선교센터를 봉헌했으며, 교회 내 대소사와 다양한 활동을 위해 물질과 봉사로서 헌신하고 있다. 2007년부터 여선교회 회계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6년째 여선교회총연합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화열 권사가 여선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비전을 나누었다.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여선교회를 정의한다면?
광림교회 여선교회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교회 안 어머니의 역할을 물심양면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성 회원들이 헌

련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기도로 준비하고, 혼자서 아닌 서로가 끝없이 배우며 나아가는 진정한 협력의 장입니다. 배려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의 헌신을 통해 어디서든 쓰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랜 기간 여선교회 봉사를 통해 받은 은혜는?
먼저, 만남의 복이 아닐까요? 여선교회에서 19년 동안 봉사를 하며 훌륭한 신앙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의 선배배들을 통해 항상 가르침, 기도와 사랑을 받았고 또 힘을 얻었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부름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정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제 기도보다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은 큰 은혜였습니다.

광림교회 전교인 선교 한마당을 주최한 소감은?
교회의 각 부서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서의 유기적 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이 이번 선교 한마당 축제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성전을 다시 세우는 가슴 떨리는 비전을 함께 품

고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 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모든 위원회와 부서, 선교구, 성도가 협력하여 선교에 힘을 합하는 전통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회장으로서 기대하는 여선교회의 비전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교 방법은 개체 선교회 활동입니다. 회장이 되던 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고 그로 야기된 어려움은 오히려 소홀했던 여선교회의 영적 훈련을 돌이켜보게 했고, 기도와 말씀 묵상, 본질적인 선교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개체 선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45개체 중

95% 이상 사명을 힘껏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연로한 세대까지 육이나 직장 생활, 노화를 이유로 선교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돕는 것이 여선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책임질 젊은 임원들과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 주시는 개체 회장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매월 첫 주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새롭게 단장된 여선교회 월례회에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광림의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박희윤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0



신붓감을 찾아 나선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 24:2-4)

아내인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래가 마음에 걸렸다. 앞으로 이삭이 자라 성인이 되면 혼인을 해야 하는데, 이웃의 처녀들은 모두 가나안족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을 믿는 가나안의 처녀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난 고향에 살고 있는 동생 나홀에게 많은 여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삭과의 결혼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아브라함의 이런 판단은 가문의 결속은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삭의 배필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곧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나홀에게 보내면서 이삭의 신붓감을 물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며느릿감은 집안을 잘 꾸리고 농장 일에도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친절하고 관대한 성품인 그야말로 현모양처(賢母良妻)형의 처녀라고 말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낙타 열두 마리에 짐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이삭의 신붓감을 찾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좇아 아람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

에서 쉬게 하였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마침 여인들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물둥이를 들고서 성 밖으로 몰려나오고 있었다. 여인들을 본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한 처녀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였다. 그의 부탁을 받은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물을 떠 주었다.

물을 마시고 갈증이 풀린 엘리에셀은 처녀의 친절함에 감탄하고, 유심히 그녀를 관찰하였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어떤 남자도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자 엘리에셀은 반 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십 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처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 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그러자 처녀는 엘리에셀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의 함자는 브두엘이고, 할머니의 함자는 밀가, 할아버지의 함자는 나홀입니다. 저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피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꿰치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친절한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로, 나홀의 아들인 브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라는 숙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원하던 며느릿감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을 알



▲ 엘리에셀을 맞이하는 브두엘.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따라 그녀의 집을 방문한다.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을 이룬다. 프랑수아 부세 작품

게 되었다.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을 만나 자신의 임무에 대해 말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

고 리브가에게 자신을 따라가서 이삭의 부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과 오빠 라반은 가문이 결합하는 것을 몹시 반겼다. 그리고 또한 브두엘은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 딸이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브두엘은 리브가에게 낮은 땅에 가서 본 적도 없는 사촌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우물가의 엘리에셀_ 이삭의 신붓감을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해 우물가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알렉산더 카바넬 작품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